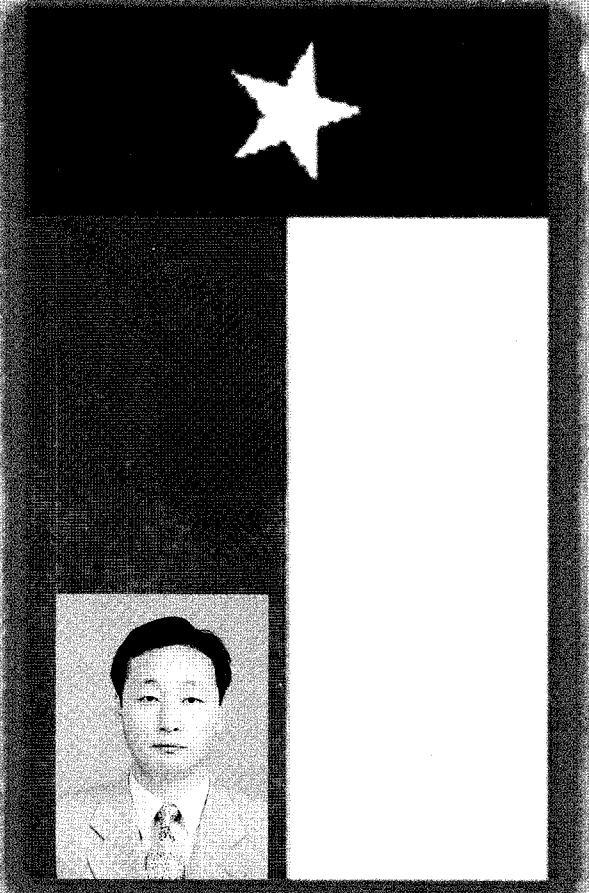


ESCO 프리즘

“NAESCO 2000 Mid-Year Conference”

New Century ★ New Opportunities



박경영소장
삼성이버랜드(주) 기술개발연구소

최근

들어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NAESCO (National Association of Energy Service Companies)는 1983년 미국내 에너지절감시장의 성장과 함께 에너지효율화 및 고객의 이익증대, 환경의 재활용 등을 근본이념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7년간 미국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해외 에너지절감 관련업체의 회원가입 및 해당업체와의 교류 등을 통하여 국제적 기구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다. 현재 NAESCO 협회는 27개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s), 5개의 準 ESCO 업체(Associate ESCOs), 61개의 에너지절약 유관업체 및 기관(Energy Service Affiliates), 6개의 국제회원업체(International Members) 등을 포함, 총 100여 개의 에너지절약 관련 업체 및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NAESCO의 주요활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정보제공(Information)의 역할이다. 연 4회 계간지로 발간되는 Energy Efficiency Journal과 Newsletter는 에너지절약시장 및 ESCO 업체의 최신 동향, 관련정책의 변동내용 및 추이, 우수 에너지절약 투자사례, 기타 전문분석 등의 글을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연 2회의 Conference와 Special Industry Briefing, Reports, Bulletins 등을 통해서도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는 대표성(Representation)의 역할이다. 관련 규제 입법의 개정 및 변경시 ESCO 업체를 대표하여 참가, 에너지정책의 입안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는 시장개발(Market Development)의 역할이다. 에너지의 효율성 사용 및 수요자측면관리(Demand Side Management, DSM) 등의 장려를 통한 신규 에너지절약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는 네트워크(Networking)의 기능이다.

NAESCO



National Association of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 업체와 사용자, 중개인, 제조업체, 에너지공급 업체, 파이낸싱업체 등 관련분야의 이익집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2회씩 개최되는 "NAESCO Conference"는 5월중에 개최되는 "Mid-Year Conference"와 11월중에 개최되는 "Annual Conference"로 나뉜다. 행사규모면으로 볼 때 "Mid-Year Conference"는 "Annual Conference"보다 작지만 금년에도 세부 주제별로 나뉘어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올해의 "Mid-Year Conference"는 Houston에서, "Annual Conference"는 Palm Springs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러한 "NAESCO Conference"에서는 특정 Issues를 정하여 토론하는 "Roundtable Discussions"과 ESCO 업체들의 보유기술을 교류하고 사업제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Business Seminars"를 Conference 기간 내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Vender Showcase"라는 에너지절약 기기 제조업체들의 부스가 30여개 정도 설치되어 Conference 기간동안 운영되며, 이를 통하여 시스템 및 정보, 프로젝트 등에 관한 많은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진다.

"New Century · New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열린 2000년 올해의 "Mid-Year Conference"는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의 기간으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The Four Seasons Hotel"에서 개최됐다. NAESCO 회원사를 비롯하여 해외 회원사까지 참석하는 이번 "Mid-Year Conference"에는 약 300여명 정도의 NAESCO 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각의 주제별로 토론과 함께 좋은 정보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Conference 첫째날인 17일에는 등록 및 토론의 시간으로 Technology Sessions과 International Sessions으로 구분하여 Roundtable Discussions을 가졌다.

Technology Sessions에서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요구가 에너지절약투자 수행에 미치는 영향", "혁신적인 안정기의 응용", "신뢰성과 경제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기술" 등에 관한 주제로 9명의 주제 연설자의 발표에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International Sessions에서는 "에너지절약투자에서의 파이낸싱 활용의 문제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국가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 "해외 에너지절약시장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하여 9명의 참가자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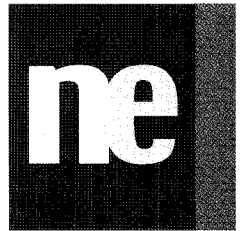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 ESCO 업체 및 해외 회원사의 자력으로 참석한 필자도 International Sessions에서 "한국 ESCO시장의 현황 및 방향"에 관하여 발표했다.

둘째날인 18일에는 작년도 "16th Annual Conference"에서 임기 2년의 신입 NAESCO 회장으로 선임된 Edward T. Liston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미래의 두 가지 Visions", "에너지절약의 닷컴 마케팅", "신기술에 따른 기존 전력생산 및 공급업체들의 변화", "Brand Identity를 통한 마케팅 도전", "교토협약이 빌딩분야에 미치는 효과", "에너지절약과 정보통신의 만남", "규제완화 및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산업구조의 변화", "규제완화 이후의 시장변화"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정부측 정책 입안자에 대한 질의 응답", "산업체프로젝트의 가치 극대화 및 위험요소 회피", "절약기업체들의 틈새시장", "ESCO업체와 절약기업체간의 관계 강화" 등에 관한 세미나로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NAESCO Conference에서 "한국 ESCO 시장의 소개"와 함께 선진 ESCO 시장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 ESCO시장의 전개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또한 NAESCO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ESCO 시장의 소개"와 함께 선진 ESCO 시장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 ESCO시장의 전개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